용인시, 동백 '자율주행차 신기술' 국내 첫 실증

이달 한달간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 시범 운행

다수의 정보 통합 제공… '용인A01번' 적용 검토

경기 용인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Traffic Light Status Message)' 국내 첫 현장 실증이 기흥구 동백동 '용인 동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이달 한달간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제공하는 다수의 교통신호 정보를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한 새 운용방식을 실제 도로에서 검증하기 위해 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실증 장소로 선택했고, 시가 협조에 응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그간 자율주행버스가 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신호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받은 교통신호와 시가 구축한 교차로 위치 정보를 조합해 자율주행차에 제공해왔다.

이번에 실증하는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은 공단이 이 2가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찰청과 공단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교통신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는지 확인하고, 시는 실증할 교차로와 운행구간을 선정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자율주행차 운영기관이 별도로 신호와 위치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형식의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실증을 통해 정보 전달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향후 동백 지역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 '용인A01번'에도 해당 방식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증은 자율주행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규 운행 시간이 끝난 이후에 진행된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현장 기자석



문 찬 식 (인천본부장)

불성사납게 뒤엉킨 전선과 도로변을 점령한 전신주는 오랫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주민 왕래가 잦은 생활권일수록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렇기에 강화군이 추진하는 '알미골 사거리~하나로마트 간' 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다.

공중에 얼키설키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에 묻고 전신주를 철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군민 혈세 40여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단순한 시설 정비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거미줄 같은 전선이 사라진 깨끗한 하늘은 강화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넓어진 보행로는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한 정전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행히 지난해 인천시 사업 승인이 났다.

또 올해 한전 최종 승인까지 받아 사업 추진의 단단한 기반이 마련됐다. 강화군은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7년 착공, 연내 준공을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교통 통제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군은 착공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일정을 자세히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전 및 통신사와 긴밀히 협의, 공사 기간을 최적화하는 군의 방침은 다행스럽다. 도시 경쟁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지중화 사업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강화를 찾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땅속에 묻는 전선이 '강화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땅속 묻는 전선 '강화의 미래' 밝히길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은 박관열 시장(오른쪽)이 벼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공공비축미 전량 '톤백 매입' 전환

퇴촌면서 7만6800㎏ 매입… 포대벼 방식 제외

인력 투입·부대비용·작업시간 절감 효과 인증

경기 광주시는 5일 퇴촌면 정영로 359 일원에서 2026년산 공공비축미 7만6800㎏을 매입했다.

올해는 기존 포대벼와 톤백을 병행하던 매입 방식을 전량 톤백으로 전환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촌 인력난에 대응했다.

기존에는 40㎏ 단위 포대벼와 800㎏ 단위 톤백을 함께 매입했지만, 포대벼는 벼를 싣고 내리거나 쌓는 과정에서 기계화가 어려워 대부분 인력에 의존해야 했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으로 작업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매입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시는 전량 톤백 매입을 결정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농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톤백 저울과 수분 측정기, 톤백 포대 등을 임대하거나 지원하고, 농가별 품위 규격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매입 현장에서는 지게차를 활용해 벼 하차부터 등급 판정까지 진행하면서 작업 시간이 단축됐다. 인력 투입과 부대비용도 줄어드는 등 매입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시는 톤백 매입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관열 시장은 "매입 방식 변경에도 시의 결정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농가에 감사드리며, 매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농에 최선을 다한 농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광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화성시-中 우장구, MOU 체결

기업·문화·교육 우호협력 확대

경기 화성시는 5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우장구 대표단을 맞이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쑨다오쉰 우장구 당위원회 서기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 6명은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문화예술·경제산업·교육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장구는 화성시가 2000년 9월 27일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도시로, 올해 자매결연 26주년을 맞았다.

이번 방문은 2025년 11월 정명근 시장의 우장구 방문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의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미술관 간 교류협력, 지역 산업의 강점을 활용한 기업 간 협력, 학교 간 교류 및 교육협력, 정기적인 소통·협의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도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인상

내년부터 '月 10만→15만원'

경기 파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훈명예수당을 2027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답을 제공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인상으로 지역내 국가보훈대상자 5400여명이 혜택받을 예정이며,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실질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이천시, 원스톱 '민원후견인제' 확대

44→48팀… 복합민원 편의 UP

건축·개발등 총 25종 상시 안내

경기 이천시는 복합민원·장기소요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6급 팀장(26개 부서·총 48개 팀)을 중심으로 지정·운영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올해 대상 팀을 기존 44개에서 48개로 4개 팀 확대해 복합민원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시는 건축·개발 등 복합민원 원스톱 대상 사무(25종) 접수시 후견인 제도 안내를 의무화해 민원인의 절차적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 공무원 명단을 종합민원실에 비치해 상시 안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하이라이트' 공모

인천 강화군 'DMZ 노선 3.8㎞' 선정

다양한 걷기여행 프로 개발

인천 강화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7년 코리아둘레길 하이라이트 구간 활성화'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2027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걷기 여행을 연계하고, 숙박·식음·체험을 결합한 1박2일 이상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평화전망대와 의두돈대, 접경지역 철책선 구간 등 북부권의 역사·평화자원과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걷기 여행 콘텐츠로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코리아둘레길 DMZ 테마노선을 확장·고도화해 약 3.8㎞를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육성한다.

올해 'DMZ 관광페스타'에서 선보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짐꾼 걷기와 평화 업서 쓰기, 미션카드를 활용한 탐방 등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걷기 여행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당일형 트레킹과 1박2일 체류형 관광상품을 함께 운영하고, 강화 북부권의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 숙박·체험시설을 연계해 걷기 여행이 지역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의 완성도를 높인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연천군, 조류독감 재난대책본부 가동

도신리 산란계 농장서 발생

인근 18개 농가 AI 정밀검사

경기 연천군은 지난 4일 신서면 도신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준비 및 명령, 농장 출입 통제와 이동제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방역대내 18개 농가에 대해서는 4일부터 5일까지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양계농가 26호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전화 예찰 및 방역 상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연천=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이재준 시장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시, 장애인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 성료

경기 수원시가 지난 4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2026년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를 열었다.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곳이 참여해 화장지, 복사 용지, 현수막, 제과·빵류, 장갑, 커피 등 다양한 생산품을 전시·판매하고 시민들에게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을 알렸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안내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재준 시장은 박람회장을 찾아 전시된 제품을 살펴보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에는 근로사업장 1곳, 보호작업장 14곳, 직업적응훈련시설 2곳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직업적응능력과 직무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순찬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은 "이번 박람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과 장애인의 자립에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김포시,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 김포시가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교육·홍보·캠페인을 함께할 시민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공정무역 활동가(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김포시공정무역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 교육장(장기동 소재)에서 총 6회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은 ▲공정무역의 개념과 역사 ▲생산자와 물품 이야기 ▲공정무역마을의 의미와 활동 ▲활동가의 활동과 교육 ▲광명시 실천 사례 ▲학교 수업 등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모집인원은 15명으로, 공정무역 활동과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김포시민을 우선 모집한다.

신청은 4일부터 10일까지 홍보물의 큐알(QR) 또는 신청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포=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안양시, 8일 시청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경기 안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 및 관리를 돕기 위해 오는 8일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 안양시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점검 휴게 시간 낮 12시~오후 1시) 진행되며,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면 점검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조합에 소속된 전문 정비원들이 차량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과 점비 상담을 진행한다. 와이퍼 등 소모품 교체, 오일류 보충, 차량 내부 연막 소독 등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화물차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입차 등 일부 차종은 소모품 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안양=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시흥시, 27일까지 '경기 안심부동산' 홍보 캠페인

경기 시흥시는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경기도 개발 '경기 안심 부동산' 플랫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시세, 근저당 등 주요 정보를 인공지능(AI)이 종합 분석해 권리분석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방문 홍보와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파트·원룸·빌라 등 전세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안내를 추진한다.

캠페인에는 담당 공무원 2명과 지역내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시흥시 안전전세관리단원 31명이 참여하며, 이달 2일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지역내 공인중개사사무소 2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시의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의왕도시공사, 수영장 안전요원 심폐소생술 실기평가

경기 의왕도시공사가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공사는 최근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안전요원 18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심폐소생술 실기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수영장내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가정해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담당자와 반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의왕도시공사는 안전요원의 구조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실기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구조 영법 평가를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확인했다.

의왕=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